

칠레 국외공무출장 결과보고서

- 제17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 등 -

2025. 5.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목 차

I. 출장 개요 / 1

II. 출장 성과 / 3

III. 주요 활동 / 5

1. 과달루페 태양광 발전소 시찰 5
2. 주칠레 코트라 무역관 방문 및 면담 8
3. 제17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 및 발표 13
4.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저 방문 및 대사 면담 47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제17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 및 주제 발표
- 과달루페 태양광 발전소 및 주칠레 코트라 무역관 방문 및 면담을 통한 정책현안 관련 시사점 도출

2 출장 지역

- 칠레(산티아고, 발파라이소)

3 출장 기간

- 2025.5.12.(월) ~ 5.20.(화), 5박 9일

4 출장단

- 단장 : 진익(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 단원 : 박주연(기획예산담당관)
이두영(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윤해숙(기획예산담당관실 대외협력주무관)

5 주요 일정

날 짜	주 요 내 용
5.12(월)-14(수)	출발 (인천 → 뉴욕, 뉴욕 → 칠레 산티아고)
5.14(수)	과달루페 태양광 발전소 시찰
	주칠레 코트라 무역관 방문 및 면담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저 방문 및 대사 면담
5.15(목)-16(금)	제17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 및 주제발표
5.17.(토)	주칠레 코트라 무역관장 면담
5.18(일)-20(화)	귀국 (산티아고 → 애틀란타, 애틀란타 → 인천)

II. 출장 성과

□ 글로벌 불확실성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재정 현안에 대한 OECD 각국 재정전문기관들의 경험·노하우 공유 및 관련 자료 수집

-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재정지출 증가 압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연금 또는 기후변화 등의 과제가 장기적으로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논의
- 공공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예산을 둘러싼 심도 있는 공론을 촉진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안 모색
- 그밖에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의 재정전망, 의회의 예산심의권 관련 각국의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예산 과정에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전문기관의 역할 모색

□ 각국 참석자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확장

- 제17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에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등 OECD 각국의 독립재정기구와 페루, 볼리비아, 크로아티아, 브라질 등 非 OECD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약 80여명이 참여
 - OECD는 칠레에서 열린 이번 회의를 특히 남아메리카 의회예산기구들의 지역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코자 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와 공동 구축한 <아시아 PBO 네트워크>의 사례를 중요한 협력 모델로 제시
- OECD 및 미국 CBO 대표 등 6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개최 예정인 <제3회 아시아 PBO 네트워크 국제포럼> 관계자 등과 교류 지속
 - <아시아 PBO 네트워크 국제포럼>의 공동 의장인 Mark Hadley(미 CBO 부처장)와 Jon Blondal 및 Scherie Nicol(OECD 관계자) 등 관계자들과 만남교류

- 제3회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맡기로 한 아일랜드의 Eddie Casey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아시아 PBO 네트워크 국제포럼> 및 기후변화 관련 재정모형(에디슨)에 관해 논의
- 그간 지속적으로 <아시아 PBO 네트워크 국제포럼>에 참석해 온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대표(Katie Hill) 및 금번 제3회 회의에 참여하기로 회신한 빅토리아주의 대표(Xavier Rimmer)와 인사교류
- 기존 참석자와의 지속적인 교류 및 새로운 참석자와의 교류 확장
 - 제16회 회의에서 미국 CBO의 이민자수 전망에 대해 소개했던 Julie Topoleski, 헝가리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 논의했던 Gabor Horvath(Fiscal Council 의장) 등 기존 참석자와 지속 교류
 - 일본 대표(마사나리 타니아이, 예산상임위원회 조사국 조사역), 라트비아 대표단(Inna Steinbuka, Fiscal Discipline Council 의장 등), 슬로바키아 대표(Martin Suster) 등과 각국의 재정·경제 상황 및 각 독립재정기구의 역할 등에 관해 논의

□ 과달루페 태양광 발전소 및 주칠레 코트라 무역관 방문 및 면담을 통한 정책현안 관련 시사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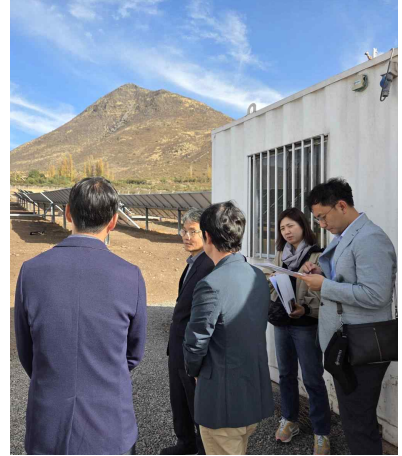
- 칠레의 태양광 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발전 요인과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논의
- 칠레의 정치·외교·경제 현안을 청취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칠레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들을 살펴봄

III. 주요 활동

1 과달루페 태양광 발전소 시찰

가 개요

- 일시: 2025년 5월 14일(수) 13:00
- 장소: 과달루페 한국수력원자력·에스에너지 합작 태양광 시설
Los Andes, Valparaíso, Chile
- 참석자: 진익 경제분석국장, 박주연 기획예산담당관,
이두영 경제분석관, 윤해숙 주무관,
한국수력원자력 이경원 차장, 에스에너지 한신영 칠레 법인장 등



주: 태양광 발전소 시찰 모습. 과달루페 태양광 발전소에는 1만 6,000개의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어 있으며, 두 대의 인버터가 각각 8,000개씩의 모듈과 연결되어 모듈에서 생산된 직류 전력을 교류로 변환. 각 태양광 모듈은 태양의 각도에 따라 자동으로 방향을 조정하는 추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음

나 주요 내용

(1) 요약

- 칠레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음
 - 칠레는 2024년 2월말 기준 전체 전력 설비용량 중 화력(36.8%), 태양광(27.5%), 수력(21.4%), 풍력(14.0%), 지열(0.3%)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음
 - 한편,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4년 발전 비중은 원자력(32.5%), LNG(29.8%), 석탄(29.4%), 신재생(6.9%) 순으로 G20 주요국 중 낮은 수준
- 한수원과 에스에너지는 공동 투자를 통해 칠레 수도(산티아고) 인근 과달루페 지역에서 설비용량 총 6.6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중
 - 칠레 산티아고는 높은 일사량과 건조한 날씨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데 좋은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한국수력원자력(60%),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30%), 에스파워 주식회사(10%) 등 공동투자
 - 한수원은 국내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신재생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2) 면담 내용

- (진익 경제분석국장)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높아 방문하게 되었음. 한국과의 거리가 먼 칠레에서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시는 부분을 높이 평가함

- (한신영 에스에너지 칠레 법인장)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태양광 시설을 방문하여 사업과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함
- **(진익 경제분석국장)** 칠레에 태양광 사업을 진출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경원 한국수력원자력 차장, 한신영 에스에너지 칠레 법인장)** 칠레는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 일사량이 풍부하고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연중 지속됨.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태양광 기자재를 제작·수출하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팔거나 감축목표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출함
- **(진익 경제분석국장)** 우리나라의 칠레 태양광 사업 진출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경원 한국수력원자력 차장)** 우리나라는 2017년 칠레 소규모 발전 시장(PMGD)에 진출한 이래 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발전사)과 EPC(설계, 조달, 시공)을 하는 민간기업(한화큐셀, 에스에너지 등)이 팀을 구성하여 진출함. 남동발전은 태양광 발전소 10곳을 운영 및 건설 중이고 에스에너지는 한수원과 과달루페와 마리아핀토 2곳에 6.6MW와 6.4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25년간 운영할 계획임
- **(진익 경제분석국장)** 칠레 태양광 사업 운영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 **(이경원 한국수력원자력 차장, 한신영 에스에너지 칠레 법인장)** 한수원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고 있으나 함께 진출한 기업은 아직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칠레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 전력 가격 안정화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또한, 태양광 사업을 통한 배출권 확보는 아직 미확정이며, 25년 사업기간 동안 모듈 등의 태양광 시설 부품 교체는 10년마다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2 주칠레 코트라 무역관 방문 및 면담

가 개요

□ 일시 : 2025년 5월 14일(수) 16:30

□ 장소 : 주칠레 산티아고 무역관

Piso 19 Oficina 1901, Presidente Riesco 5435, Santiago de Chile

□ 참석자

예산정책처: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박주연 기획예산담당관, 이두영 경제분석관, 윤해숙 주무관

코트라측: 김죽현 과장, 장지호 과장



주: 코트라 무역관에서 면담 모습(左) 및 방문 기념 촬영(右)

나 주요 내용

(1) 칠레 시장 특성·동향 및 코트라 산티아고무역관 소개

- 칠레는 법치주의가 강하고 거시경제가 안정된 국가로, 태평양동맹¹⁾ 회원국이자 전세계 65개 경제권과 30여건의 FTA를 체결한 개방경제 국가
 - 한국의 첫 FTA 체결 대상국으로, 2004년 발효되었으며, 현재 고도화 협정 진행 중
 - 1차 산업(광물, 농림수산업 등) 수출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기반이 약해 2차 산업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며, 온오프라인 유통이 발달
 - 공공인프라가 민영화(전력, 도로, 항만 등)되어 외국 기업의 인프라 투자 기회가 많고 외국인 투자 환경이 양호해 기업활동에 유리
- 2025년 11월 대선 이후 기업 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회복과 소비 증가, 투자 환경 및 치안 개선 기대
 - 국가주도 리튬 개발을 위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진행 중이며, 포스코와 LG에너지솔루션이 참여 중(2025년 중 발표 예정)
 - LG엔솔, SK온, 현대기아자동차는 SQM(Sociedad Quimica y Minera de Chile S.A.)과 리튬 장기구매계약 체결
 - (마리쿡가 염호)는 2025년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예정, (알토안디노스 염호)는 2025년 5월 중 결과 발표 예정
 -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그린수소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인프라 구축도 적극 추진 중
 - 2024년 설비용량 기준 태양광 27.5%, 수력 21.4%, 풍력 14% 차지

1) 경제 통합과 아시아-태평양 시장 진출을 목표로 2011년 결성한 지역경제협력체(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 1977년 개설된 코트라 산티아고무역관은 본사 파견 3인과 글로벌 스태프 10인 등 총 16인이 근무 중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지사화, 마케팅 및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특히 방산 및 K-푸드 수출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 중
 - (지사화 지원)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해 무역관이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현지 마케팅 지원) 유통망 연계 판촉행사, 대형유통망 입점 프로모션, 한류 연계 소비자 체험행사, SNS기반 디지털 캠페인 등 현지 소비자와 접점 확대
 - (프로젝트 수주 지원) 에너지(그린수소), 핵심광물개발(리튬) 등 칠레 정부 중점프로젝트와 인프라(건설·교통) 분야 대형 공공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
 - (2025년도 주요 사업) K-방산 홍보회 개최 등 방산수출 지원 및 식품전시회 한국관 참여 등 K-푸드 수출지원 추진

(2) 면담 내용

- **(진익 경제분석국장)** 칠레는 한국의 첫 FTA체결 국가이자 30여건의 FTA를 체결한 개방경제 국가로 알고 있음. 주된 수출 품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 **(김죽현 과장)** 칠레는 주로 1차 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고, 특히 구리는 칠레 전체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 품목임. 전 세계 구리 생산 1위, 리튬 생산 2위 국으로, 이외에도 몰리브덴, 아이오딘의 주요 생산국임
- **(진익 경제분석국장)** 칠레에서 국가주도 리튬개발을 위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중국 기업들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철회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어떠한 상황인지

- (김죽현 과장) 칠레는 2024년 ‘리튬개발 세부전략’을 발표하고, 리튬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 결과는 발표 전임. 한국은 리튬을 포함한 배터리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칠레는 한국 기업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아직까지 우리 기업이 참여를 포기하거나 철회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음
- (진익 경제분석국장) 칠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황과, 특히 발전사업에서의 현황은 어떠한지
 - (김죽현 과장) 현재 칠레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총 27개사가 있으며, 우리기업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전력사업임. 우리 기업의 진출 사례를 소개하면, 대표적으로 포스코건설은 2006년부터 화력발전소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설계·조달·시공 일괄 수행) 6기를 수주(30억불)하였고, 태양광발전의 경우 에너지공기업과 EPC기업이 코리아 원팀으로 동반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임
- (진익 경제분석국장) 최근 산티아고무역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 (장지호 과장) 최근 우리 무역관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방산분야와 K-푸드임. 4월 28일 K-방산홍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칠레 내 한류의 영향으로 K-푸드가 현지에서 점차 대중화되고 있어 이를 중점 지원하고 있음
- (진익 경제분석국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보람되거나,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
 - (장지호 과장) 우리 무역관은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음. 조직 내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인정되어 올 상반기 전체 132개 무역관 중 베스트 5개 무역관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음. 무역관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

칠레 진출 기업 현황

연번	기업명	진출년도	진출형태	업종	취급분야
1	한국광해광업공단	2011	연락사무소	자원	국내기업 광물자원 확보지원
2	한국남부발전	2012	지점	발전업	발전
3	Kelar S.A	2013	생산법인	발전업	발전
4	한국남동발전	2018	생산법인	발전업	발전
5	한국수력원자력	2020	연락사무소	발전업	발전(태양광)
6	삼성물산	1980	지점	도매 및 소매업	종합무역상사
7	삼성전자 칠레법인	1981	판매법인	도매 및 소매업	가전제품, 통신제품
8	LG전자 칠레법인	1981	판매법인	도매 및 소매업	백색가전 및 일반 전자제품, 휴대전화
9	현대종합상사	1993	지점	도매 및 소매업	종합무역상사
10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	2019	지점	도매 및 소매업	종합무역상사
11	HMM(구 현대상선) 칠레지점	2014	서비스법인	운수업	해운, 항공 국내외 운송 물류
12	현대건설기계	2023	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
13	한화큐셀코리아	2014	서비스법인	서비스업	태양광 발전
14	에스에너지 칠레법인	2017	법인	발전	태양광 발전, 유지보수
15	효성중공업	2022	지사	전력제품	변압기, ESS 등
16	포스코건설 칠레지사	2006	지점	건설/공사업	인프라 건설 (발전, 수처리, 항만 등)
17	태웅로지스틱스 칠레법인	2005	서비스법인	운수업	국제 물류운송서비스
18	엘엑스 판토스	2013	판매법인	서비스업	운송창고업, 물류
19	아이센스 칠레법인	2015	판매법인	제조업	혈당측정기
20	셀트리온 칠레법인	2018	판매법인	제조업	바이오시밀러(항암제)
21	이건산업	1993	생산법인	제조업	목재, 합판, 베니어 생산
22	한국타이어 칠레지점	2007	판매법인	기타	타이어 판매
23	제일기획	2015	지사	광고대행업	광고대행업
24	PRM (LS MnM)	2014	생산법인	광업자원개발	귀금속 제품 생산
25	CJ Freshway	2017	사무소	식품	식품 유통업
26	ANA Engineering 칠레법인	-	판매법인	기계	유압브레이커
27	한국선급(KR) 칠레지부	-	지부	선박검사	국제선박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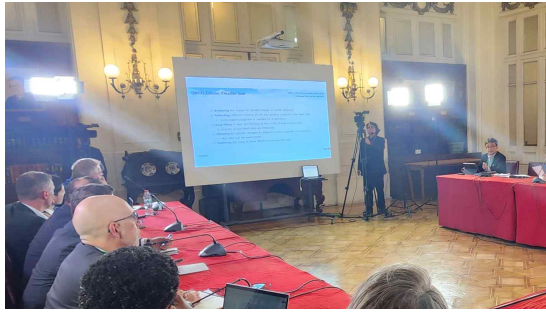
자료: 코트라 산티아고무역관

3 제17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 및 발표

가 개요

- 일시 : 2025년 5월 15일(목) - 16일(금)
- 장소 : 칠레 상원 의회
Santiago and Valparaiso, Chile
- 목적 : 각국 독립재정기구 운영 경험 및 현안 공유
세션별 agenda에 대한 각국의 현황 및 대응 방안 논의
- 참석자 : 진익 경제분석국장
박주연 기획예산담당관, 이두영 경제분석관, 윤해숙 주무관
30개국 80여명 참석





주: 산티아고 의회 회의장(앞페이지)과 진익 경제분석국장 발표 모습(상단 左右),
기타 발파라이소 회의장 등

나 회의 연혁 및 독립재정기구 현황

-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목적 및 연혁
 - OECD는 독립재정기구가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상호 간 현안과 업무성과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2009년부터 매년 개최
 -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8년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를 주최
- 독립재정기구의 의미
 - 국가 재정정책과 그 성과를 평가하는 독립적인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OECD 31개 회원국에서 41개의 독립재정기구 운용 중
 - 의회 소속 기관(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외에 행정부 소속이더라도 재정정책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면 이에 해당
 - 41개 독립재정기구에는 지방기관 포함 (예시: 호주 빅토리아주 PBO)
- OECD 독립재정기구 현황

국가명	개수	국가명	개수	국가명	개수	국가명	개수
호주	2	에스토니아	1	아일랜드	2	포르투갈	2
오스트리아	2	EU	1	이탈리아	1	슬로바키아	1
벨기에	2	핀란드	2	대한민국	1	슬로베니아	1
브라질	1	프랑스	1	라트비아	1	스페인	1
캐나다	2	독일	1	리투아니아	1	스웨덴	1
칠레	1	그리스	2	룩셈부르크	1	영국	3
체코	1	헝가리	1	멕시코	1	미국	1
덴마크	1	아이슬란드	1	네덜란드	1	합계	41

자료: OECD

다 주요 아젠다(Agenda)

- 제1주제: 칠레 의회의 예산감시 검토
 - 효과적인 예산 감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며, 공공재정과 시민 간의 강한 연계를 형성하는 데에 필수적
 - 칠레 의회의 예산 과정 참여를 살펴보고, 그 강점 및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 모색
 - 예산 결정 과정에서 의회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 탐색

- 제2주제: 공공의 이해 증진- 소통의 역할
 - 공공재정은 본질적으로 복잡하여 시민들과의 건설적인 재정 정책 논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동시에 소통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이슈를 보다 이해하기 쉽고 영향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모색
 - 각국 대표들과 그들이 속한 기관들이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며, 예산을 둘러싼 심도 있는 공론을 촉진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 방안 모색

- 제3주제: 장기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제별 논의
 - OECD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지출 압력 속에서 장기재정의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인인 ‘고령화와 연금’ 또는 ‘기후변화’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토론에 참여
 - 각 주제별 논의에서 독립재정기구들이 최근 수행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러한 과제들이 장기적으로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노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소개

□ 제4주제: 의회의 예산감시: 최신 동향

- 최근 OECD가 실시한 ‘의회의 예산감시 설문조사’의 예비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몇 년간 감시 관행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 고찰
- 위원회 구성 방식, 감시를 지원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예산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위한 의회의 역할, 입법자에게 제공되는 기술적 지원 등 핵심 요소들 비교
- 공공재정에 대한 의회의 감시 활동에 있어 새롭게 나타나는 경향과 모범사례를 비교 관점에서 조망

□ 제5주제: 국방비 지출

- 국방 분야는 지출 규모가 크고, 높은 생애주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가 특히 중요
- 그러나 국방 관련 자료의 민감성과 여러 기관에 걸친 복잡한 지출 구조로 인해, 의회와 독립재정기구가 국방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데에는 어려움 존재
- 국방비 지출 감시에 접근하는 방식을 조망하여 깊이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과 주요 고려 요소들 소개

□ 제6주제: 글로벌 불확실성 하의 재정전망

- 신뢰할 수 있는 재정전망은 효과적인 예산 수립과 경제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나, 원자재 가격 및 관세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이 존재
- 불확실성이 공식 전망과 대체 전망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함의를 논의
-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재정전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제적 모범사례와 제도적 접근법 소개

라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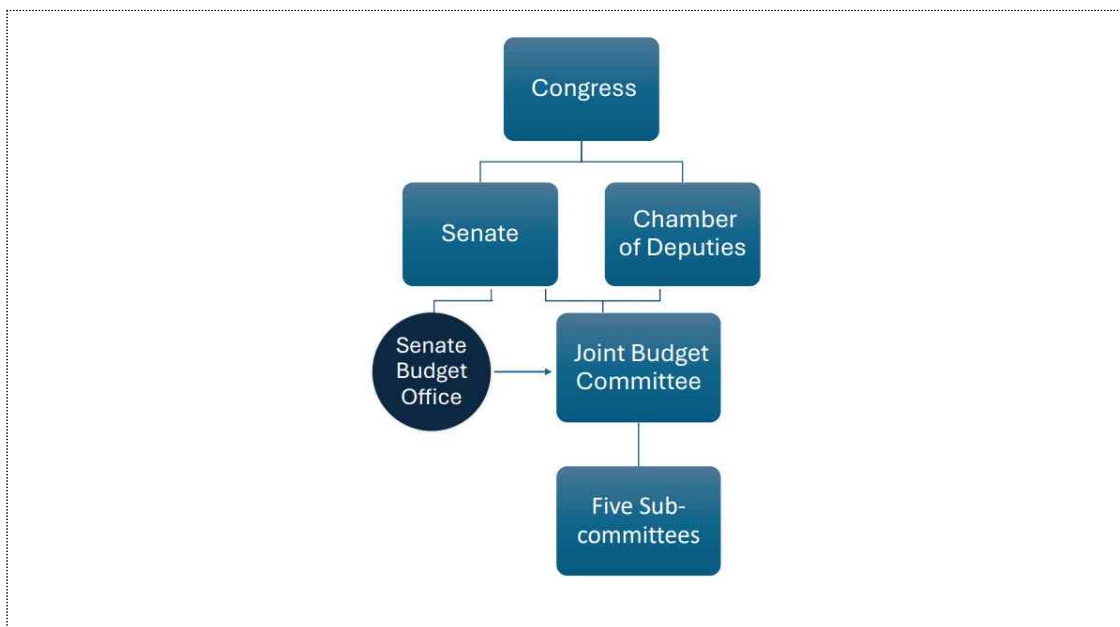
[세션 1] OECD 칠레 의회의 예산감시 검토

□ 발제 및 토론

< Jon Blondal, Head of Public Management and Budgeting Division, Directorate for Public Governance, OECD >

- 칠레의 재정기관은 재무부(예산실), 재정위원회, 그리고 의회의 세 개 기둥으로 구성
- 의회는 지출 삭감은 가능하나, 지출 증가는 불가능한 헌법적 제약이 있음. 그러나 예산의 배분 방향을 지정하고, 보고 정보(glosas)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부와 정치적 합의(Protocols)를 체결할 수 있는 등 점차 적극적 역할 수행 중
- 칠레 의회는 양원 체제로, 예산실은 상원 소속이나, 상하원 공동 예산위원회를 보좌하며, 예산위원회에는 5개의 소위원회가 있음

[칠레 의회의 제도적 체계]



자료: OECD

- 칠레 의회와 독립재정기구의 주된 도전은, ① 분석 지원(Analytical Support) 측면에서, (i) 의회의 예산 결정을 위한 독립적인 분석 지원이 부족하고, (ii) 상원 예산실의 역량은 예산 및 제도적 위치의 제약으로 인해 제한되어 있으며, (iii) 법안 비용 추계에 대한 신뢰 강화가 필요하며, (iv) 성과 정보 및 평가 결과가 예산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②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i)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이정표(milestones)가 부재하고, (ii) 소위원회간 업무 분담이 고르지 않으며, (iii) 재정의 총량적 건전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임
- 발제자는 예산 과정에서 의회가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 방안으로서, 상·하원 공동 예산실(Joint Budget Office) 설립 등을 제안함
 - 상·하원 공동 예산실은 의원에 대한 전문적·비당파적 지원 제공, 법안 비용 추계 강화 및 정부 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세 가지 필요 요건 제시

[상·하원 공동 예산실 제도적 구성(안)]

Structure	Independence	Non-Partisanship	Resources & Staffing	Access to Information	Coordination	Committee Support
Serve both chambers of Congress.	Governance and mandate enshrined in legislation Independent from both chambers and with own budget	Merit-based leadership. Specific safeguards in place.	Professional staff with relevant expertise. Resources commensurate with mandate.	Legal right to timely and complete budget data.	Complement the macro-work of Fiscal Council.	Provide formal support to Joint Budget Committee and its sub-committees

자료: OECD

- 의회 예산 절차를 체계화하는 절차적 개혁으로서, 예산 한도(budget ceilings)에 관한 하향식(Top-down) 승인, 소위원회 재구조화를 통한 균형 도모, 그리고 위원회 역할의 명확화 및 연계 등을 제시

[세션 2] 공공의 이해 증진 - 소통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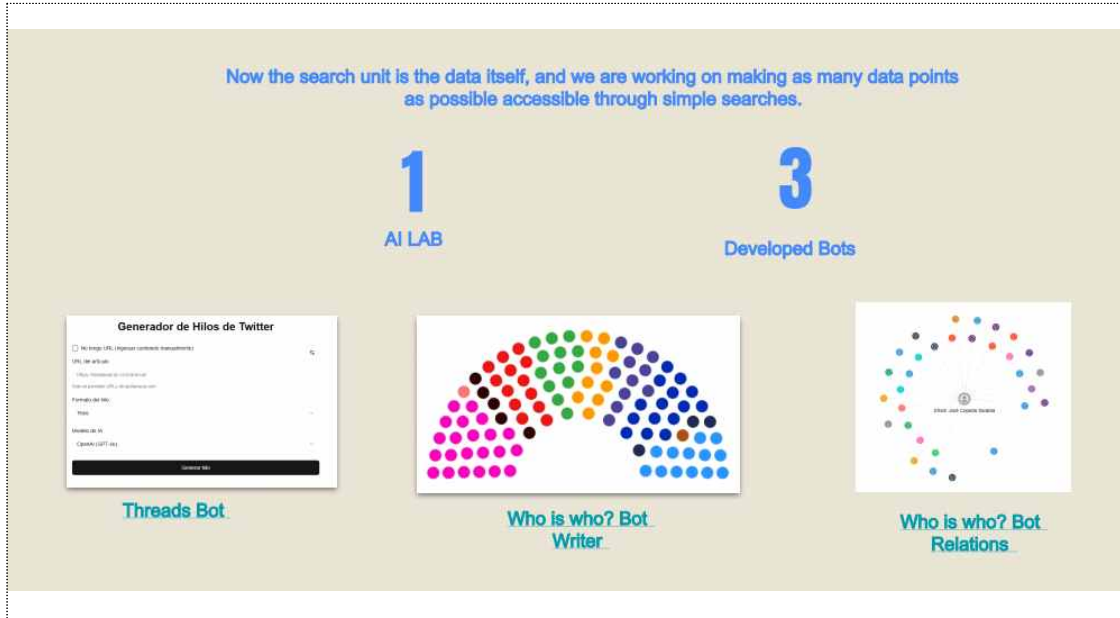
□ 발제 및 토론

<Juanita León, La Silla Vacía(언론사), Columbia>

- La Silla Vacía는 2009년 설립된 콜롬비아 최초의 디지털 기반 미디어 매체로, 경제·정치 및 언론 등 권력 전반을 보도하고 해석하며, 정보 접근에 대해 어떠한 장벽도 두지 않음
- 정보가 어디에서 소비되는가?
 -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에서는 정보소비자가 증가하고, 트위터는 정체되어 있으며, 페이스북에서는 감소하는 추세
- 패러다임 전환: 웹사이트의 탈중심화(de-center)
 - 과거에는 95%의 구성원이 기자였으나, 현재는 전체 인원의 40%가 기자 외에 다양한 전문 인력(영상제작자, 디자이너, 영상편집자 등)으로 구성
- 정보전달 경험의 시작과 끝은 사용자가 있는 플랫폼으로, 메신저 또한 미디어이며, 독자가 하나의 이야기를 접할 때 10번 이상의 스크롤이 필요한 인터넷 페이지 외에도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최소 3가지 이상의 버전으로 공유 가능
 - La Silla Vacía는 매일 웹페이지에 2개의 스토리와, 페이스북 20개 포스트, X에 40개 포스트를 업로드하고 있으며, 1개의 유튜브 영상과 1개의 짧은 틱톡 비디오를 업로드 중
- La Silla Vacía의 조언
 -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음
 - 채널의 특성 고려: 전하고자 하는 핵심 데이터가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형식을 알려줌(X는 정치적 콘텐츠, 인스타그램은 미적 요소, 틱톡은 짧고 오락적 콘텐츠 선호)
 - 성공의 시작은 시도하는 것
 - 짧을수록 성공가능성 상승 & 직설적인 언어 사용

- 이제는 개별 데이터 자체가 검색의 단위가 되었고, 가능한 많은 데이터에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

[Innovations: La Silla Vacía]



자료: La Silla Vacía

- 기사 하나가 웹사이트에서 약 1만 5,000회 조회될 때 이를 소셜미디어에 맞게 재구성하면,
 - X: 약 5-40만회 노출(팔로워 140만명)
 - 인스타그램: 평균 4만회 조회(팔로워 57.8만명)
 - 틱톡: 평균 1만 5,000회 조회(3년간 팔로워 34.5만명)
 - 유튜브: 평균 1만 5,000회 조회(구독자 16.1만명)
 - 팟캐스트(Spotify): 평균 8,000회 다운로드(3년간 구독자 2.4만명) 됨
- 여기서 공유할 수 있는 시사점(Lessons)은, (i)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불투명하고, (ii) 플랫폼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목적을 가지고 (iii) 언제든 사라질 수 있으며, (iv)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임
- 조회수 증가와 심도있는 분석 간 균형을 찾을 필요

〈José Mauricio Salazar Saenz, Director, Fiscal Observatory, Pontificia Universidad Javeriana(히베리아나 대학 재정관측소장), Columbia〉

- 히베리아나 대학 재정관측소는 비영리적, 비당파적 기관으로서 투명성, 협력적 영향력,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원칙에 따라 운영
 - 주요 재정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실행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공공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평가하는 싱크탱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재정·노동연금 개혁에 대한 정책 제안을 통해 공공 담론 활성화
 - 세입, 지출, 데이터분석, 사회정책, 시민가이드 등의 영역에서 직무 수행
- 시민들은 재정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더라도 내용이 너무 복잡하거나 정보가 흩어져 있어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
 - 히베리아나 대학 재정관측소는 2024년 언론보도 1,500건 이상, 웹페이지 방문 10만회 이상, 5백만 달러 상당의 (무상)언론 노출이라는 성과를 거둠
- La Silla Vacía는 다른 행위자들(산·학·연·정부)과 협력하는 미디어 매체의 예시이자, 독자적인 언론 조사를 수행 중

[히베리아나 대학 재정관측소와 La Silla Vacía의 협업]



자료: Fiscal Observatory, Pontificia Universidad Javeriana

- 재정의 민주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아야 함

< 소통 증진과 관련한 기회와 도전(그룹 토론) >

- 소통의 대상이 되는 청중을 어떻게 타겟팅할 것인가라는 어려움이 있으며(아일랜드 대표), 대상에 따라 소통의 방식이나 창구도 달라지는 것이 합리적
- 스페인의 경우 뉴스 컨퍼런스를 열고 있으며, 미국 CBO에서도 기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기술적 배경이 없는 독자들에게도 독립재정기구의 분석 내용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예산정책처에서도 올 5월부터 기자 대상으로 주요 재정경제안내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다수의 대표들이 긍정적으로 평가
- 전통적인 홍보 방식과 새로운 홍보 방식 또는 매체가 선택적인 것이 아니며, 매체 자체가 가지는 정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음(벨기에 대표)
- 영국은 짧은 분량의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 추진
- 남아공에서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이 때 행사를 공개함으로써 관심 있는 시민들이 예산 등 재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반대로 호주의 경우 의원대상 설명회는 비공개로 진행함
- 사실상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경우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의 문제가 계속 남음(아이슬란드 대표)

[세션 3]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제별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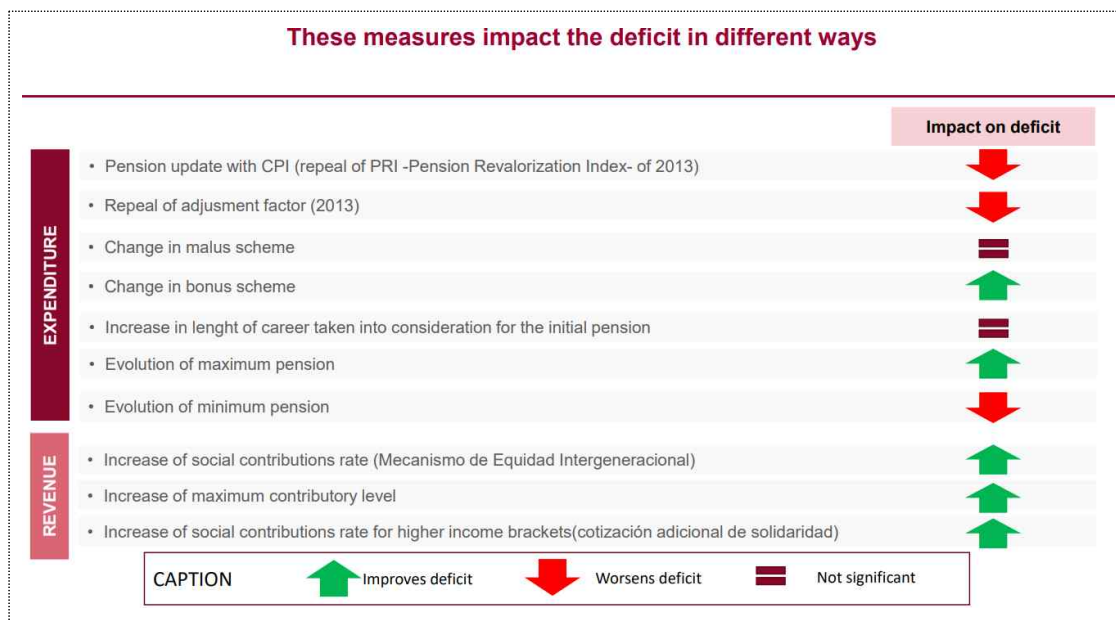
(1그룹) 고령화와 연금

□ 발제 및 토론

<Itziar Alberdi Garriga, Economist, AIREF(스페인 독립재정기구), Spain>

- 스페인에서는 2021-2023년간 연금개혁이 추진됨
 - 지출 관련 주요 개혁 내용은 연금액의 CPI연동, 조기 퇴직에 대한 패널티 및 지연 퇴직에 대한 보너스 제도 개선(일시금 선택 가능), 수명연동 조정 폐지 등임
 - 수입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기여율 인상, 상한기여금 상향 조정 및 고소득자 추가 부담 도입 등이 주된 내용
- AIREF는 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코호트 모델을 사용하여 동 연금개혁의 재정 영향, 적정성, 형평성, 기여도 등을 분석

[연금개혁 주요 변수별 재정 효과]



자료: AIREF

- 연금지출은 2023년 GDP의 12.9%에서 2050년 16.1%까지 증가 후

- 2070년에는 14.7%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
- 연금개혁으로 평균 연금이 25%이상 증가하며, 이에 따라 지출이 늘어나고, 조기퇴직자는 감소하고, 지연퇴직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제도개편과 수명 증가로 IRR(내부수익률)과 소득대체율 모두 상승함
- 연금개혁 조치는 지출, 적정성, 형평성, 기여도 측면에서 상반된 영향을 미침
- PRI(연금상승지수, 재정여건과 연금수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연금인상률 결정)폐지는 소득대체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급여 비율을 높여 적정성을 개선
- AIReF는 향후 개별 선택의 합리성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확정할 예정

<Julie Topoleski,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미국의 사회보장은 연방 예산에서 가장 큰 단일 프로그램으로, ① 노령 및 유족보험(OASI)과 장애보험(DI)의 두 가지로 구성
 - 노령 및 유족보험(OASI): 은퇴한 근로자와 자격을 갖춘 부양가족 및 일부 유족에게 급여 제공
 - 장애보험(DI): 장애근로자 및 그 부양가족에게 급여 제공
 - ※ 급여 수준은 평균 소득과 누진적인 산식에 따라 산정
- 미국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급여세*와 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가 재원이며, 이 수입은 OASI 및 DI 신탁기금에 적립
 - ※ 급여세는 사회보장제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6.2%+6.2% = 12.4%)
- CBO가 기초전망에 따라 10년간 추정된 비용은 다음의 특징을 보임
 - 급여지출 총액은 수급자 수와 평균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
 - 수급자 수는 관련 인구 증가와 연령·성별 수급 비율 변화에 따라 증가하며, 평균 급여는 주로 인플레이션, 일부는 전반적인 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
 - 하위 집단에 대한 비용 추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상세 전망 보완 필요

- CBO의 기초전망은 신탁기금 잔고와 무관하게 사회보장법상 예정된 급여가 계속 지급된다는 가정 반영
- 신탁기금의 수입과 지출
 - OASI 신탁기금은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DI 신탁기금은 2064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며, OASDI 통합 신탁기금 기준으로는 2034년 고갈 예상
 - 신탁기금 고갈 이후에는 수입 범위 내에서만 급여 지급이 가능하며, 약 25%의 삭감이 필요할 수 있음

[CBO 10년 기준선 전망에 포함된 사회보장 신탁기금 정보]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BUDGET INFORMATION												
Billions of dollars, by fiscal year												
Income to trust funds												
Payroll tax revenue	1,260	1,304	1,364	1,418	1,472	1,530	1,591	1,654	1,718	1,782	1,848	1,917
Other income												
Income taxes on benefits	54	67	82	89	94	100	106	112	118	125	133	140
Federal payroll tax, employer share ^a	23	23	24	25	26	27	27	28	29	30	31	32
Interest ^b	67	68	62	61	58	54	48	41	30	20	22	25
Subtotal, other income	144	158	168	176	179	181	181	181	177	175	186	196
Total income	1,404	1,462	1,532	1,594	1,650	1,711	1,772	1,835	1,895	1,957	2,034	2,113
Outgo from trust funds												
Benefits	1,448	1,566	1,658	1,754	1,859	1,961	2,065	2,173	2,282	2,393	2,504	2,617
Discretionary administration	6	6	7	7	7	7	7	8	8	8	8	8
Treasury administration	1	1	1	1	1	1	1	1	1	1	1	1
Railroad Retirement transfer	6	6	6	6	6	6	6	6	6	6	6	6
Total outgo	1,461	1,578	1,671	1,768	1,872	1,975	2,079	2,187	2,297	2,408	2,519	2,632
Net cash flow (includes interest income)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91	-154	-177	-211	-261	-306	-352	-401	-454	-506	-543	-580
Disability Insurance	35	38	38	37	39	42	46	49	53	56	58	61
Primary cash flow (excludes interest income)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b	-154	-215	-231	-262	-309	-347	-386	-426	-466	-506	-543	-580
Disability Insurance	30	31	30	28	28	29	31	33	34	35	36	36
End-of-year balance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b	2,582	2,428	2,251	2,040	1,779	1,473	1,121	719	265	c	c	c
Disability Insurance	178	216	254	291	330	372	418	467	520	575	634	6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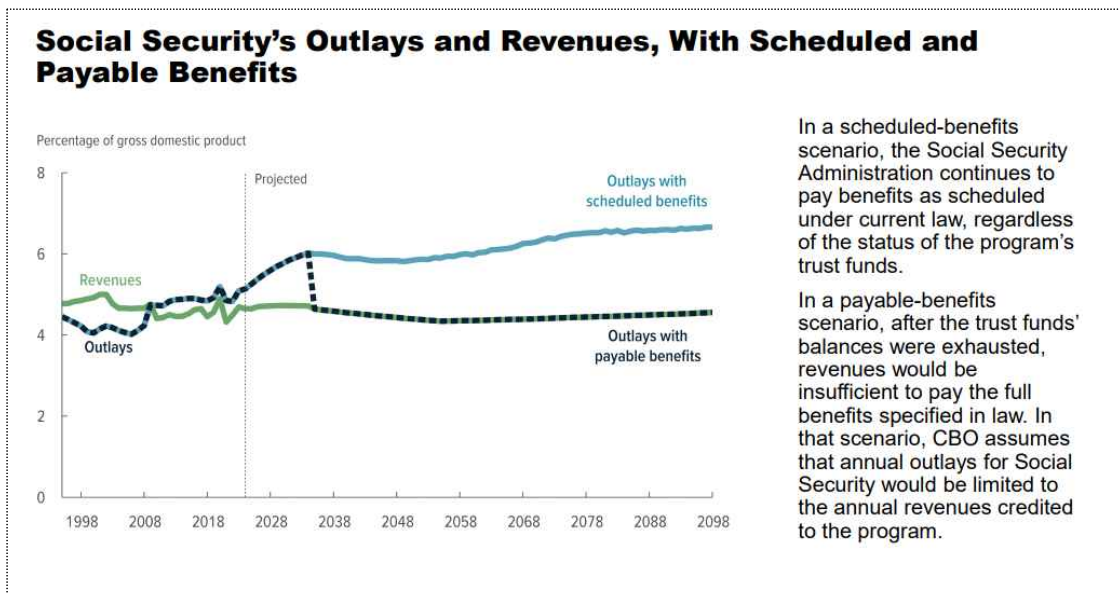
자료: CBO

- 2000년대 초반 만들어진 75년 장기 사회보장 전망 모형은 CBO가 행정용 미시 자료에 대한 법적 접근 권한을 확보한 후 해당 미시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
 - 해당 모형은 사회보장청(SSA)의 연속근로이력표본(CWHS)을 기반으로 하며, 여기에는 개인의 성별, 출생 연도, 소득,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및 수령액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모형 구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님
 - 동 모형은 대표 표본에 포함된 각 개인의 인구학적 변화와 경제적 결과(결혼, 사망, 이민, 출국, 실업상태, 소득, 사회보장급여 청구 여부 등)를 예측하며, 종단적(longitudinal)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개인에 대해

여러 결과 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

- 미시자료 분석모형은 기준선 결과를 예측하며, 지출을 수입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급여 삭감 수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
- 사회보장 지출 및 수입 예정급여 대비 지급가능 급여 시나리오
 - 예정급여 시나리오(scheduled-benefits scenario)에서는 현재 법률에 따라 예정된 급여를 계속 지급한다고 가정
 - 지급가능급여 시나리오(payable-benefits scenario)에서는 신탁기금이 고갈된 이후 연간 사회보장 지출이 프로그램에 귀속된 연간 수입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가정

[사회보장 지출 및 수입]



자료: CBO

- 그래프의 파란 실선은 예정된 급여 지출 기준이고, 파란 점선은 지급가능한 급여 지출 기준이며, 초록 실선은 수입(revenues).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수입과 지출 간 불균형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신탁기금 고갈 이후에는 급여 수준이 수입 수준으로 제한
- 미시자료 모형 외 다른 모형들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 수행. (예)총수요 효과(단기) 포착을 위한 승수 모형(multiplier model) 활용, 구축효과(crowding out) 설명을 위한 솔로우(Solow) 방식 성장모형 사용

(세션 3 - 2그룹) 기후변화

□ 발제 및 토론

<진익 경제분석국장, 국회예산정책처,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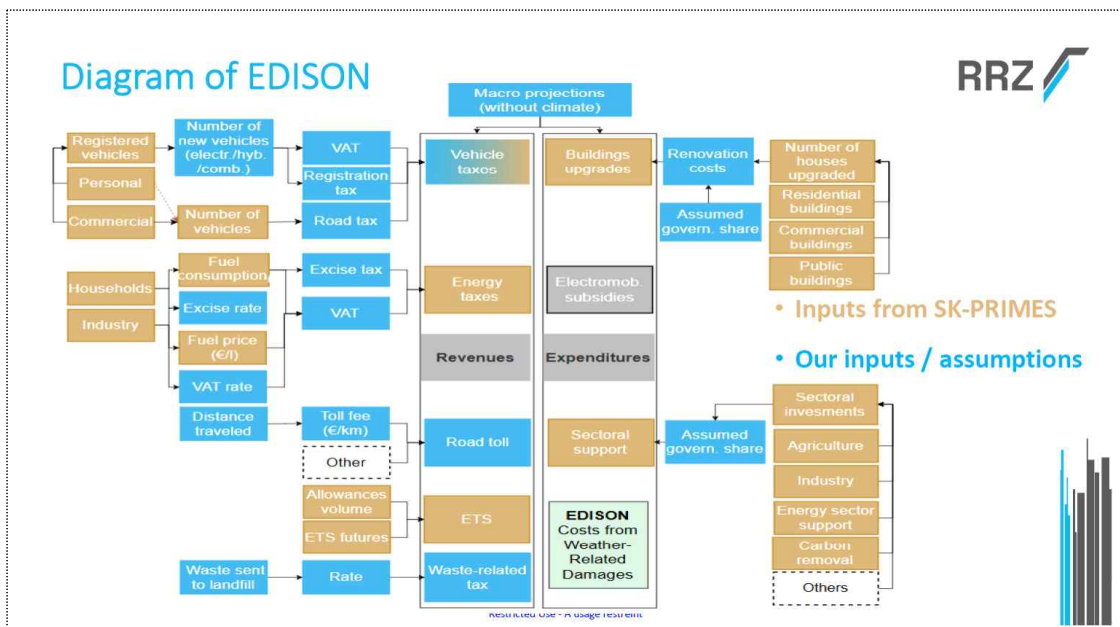
※ 발표자료 참고(41쪽)

- OECD가 개발하고 있는 Edison 모형과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하고 있는 경제분석(예, 기후변화가 국민경제, 재정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 OECD가 개발하고 있는 Edison 모형 개요
 - 기후변화의 재정적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분석 도구로서 아일랜드 재무부와 영국 OBR(예산책임청)의 관계자가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 표준화된 방법론을 토대로 공통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OECD 회원국에 제공하는 것이 개발 목적임
 - 엑셀 시트에 주요 입력 정보를 사용자가 입력하면 추정 결과가 출력되는 방식으로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임
-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분석에서 Edison 모형을 연계할 수 있는 사례
 -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고 있으며, 전망 시계를 2050년까지 연장하면 해당 결과를 Edison 모형의 입력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음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분석에서 하향식 접근법을 통해 재정지출의 배출량 유발 효과를 추정하고 있으며, Edison 모형의 상향식 접근법을 활용하여 부문별, 산업별 파급경로를 세분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Edison 모형을 참조하여 재정지출 영향 추정, 재정수입 전망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이 Edison 모형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사례
 - Edison 모형에서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 거시경제 변수들을 재정지출의 영향을 받는 형태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제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분석기법이 활용될 수 있음

< Jan Toth, Council for Budget Responsibility, Slovakia >

- OECD가 개발한 Edison 모형을 슬로바키아에 적용한 결과와 한계점을 중심으로 발표
- 아직 기대했던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Edison 모형의 기여를 높이 평가
 - 복잡한 부분인 기후 변화의 재정 및 경제에 대한 영향에서 의미있는 진전
 - 재정 부문 전달 채널에 대한 체계적인 프레임워크 구축
 - 기후 정책과 공공 재정 간의 주요 연결 고리 명확화(수입 및 지출 측면)
 -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여 담당 부처와 보다 집중된 논의 가능
 - 내부 역량 관리 용이성이 확대되어 해당 주제 분석을 위한 전담 인력 최대 0.5명 배정 필요, 필요에 따른 유연한 확장 가능

[EDISON 모형 구성]



자료: Jan Toth


- Edison 모형의 한계점과 과제
 - 정책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시나리오 가정
 - 기상 이변이 외생적 변수로 처리되며, 모든 사건이 기상 이변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가정

- 국내총생산(GDP)이 SK-PRIMES 모형 결과와 내생적으로 연결되지 않음
-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지만,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계측하지 않음
- 정책의 효과를 조치가 있었을 때와 조치가 없었을 때를 비교하여 제시하나 슬로바키아와 같은 국가가 전 세계 온도 변화에 영향을 주기에는 크지 않음. 또한 동기, 비준수 비용, 무임승차 문제를 모형에 반영하지 않음
- Edison에서 사용하는 예산 항목과 슬로바키아 CBR에서 사용하는 예산 항목 간 차이가 존재하여 이를 고려한 가정이 필요
- SK-PRIMES의 투입값이 2019년부터 시작되어 갱신의 필요성이 있으며 과도하게 긍정적인 가정이 반영되어 있음
- 전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정책에 따른 전환(예: 전기차)이 불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저투자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감소, ETS 관련 비용,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노출 정도 등에 대한 2차 또는 간접 경제 효과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존재

[EDISON 모형 한계점]


Challenges (1)

- **No policy change scenario assumptions**
 - EDISON assumes nominal tax rates fixed over the long term → gradual decline in revenue as a share of GDP (esp. excise taxes)
 - CBR: assumes (for now) constant tax rates in real terms (but in our NPC we even assume constant revenue as a % of GDP)
- **Extreme events**
 - Currently treated as exogenous to the climate scenario – to do
 - Assuming all events have happened solely due to climate change
- **GDP (in)consistency**
 - GDP is not endogenously linked to SK-PRIMES outcomes
 - The SK-PRIMES model does not generate GDP projections internally
 - Only a denominator effect is captured, based on a coefficient reflecting assumed global temperature increase (Kahn et al., 2021)



www.rrz.sk

Restricted Use - À usage restreint



자료: Jan Toth

< Eddie Casey, Public Management and Budgeting Division, OECD >

- Edison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해 주신 발표자에게 감사를 표함. Edison 모형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가용 데이터 및 인력의 한계로 각국의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함. 다만, 기후 변화는 고령화와 함께 중요한 이슈로 본 모형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가 있음. 본 모형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한 각국의 협조 및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 각국의 Edison 모형 활용을 통해 기후 변화에 따른 비용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높이고 보다 진전된 대응이 논의되길 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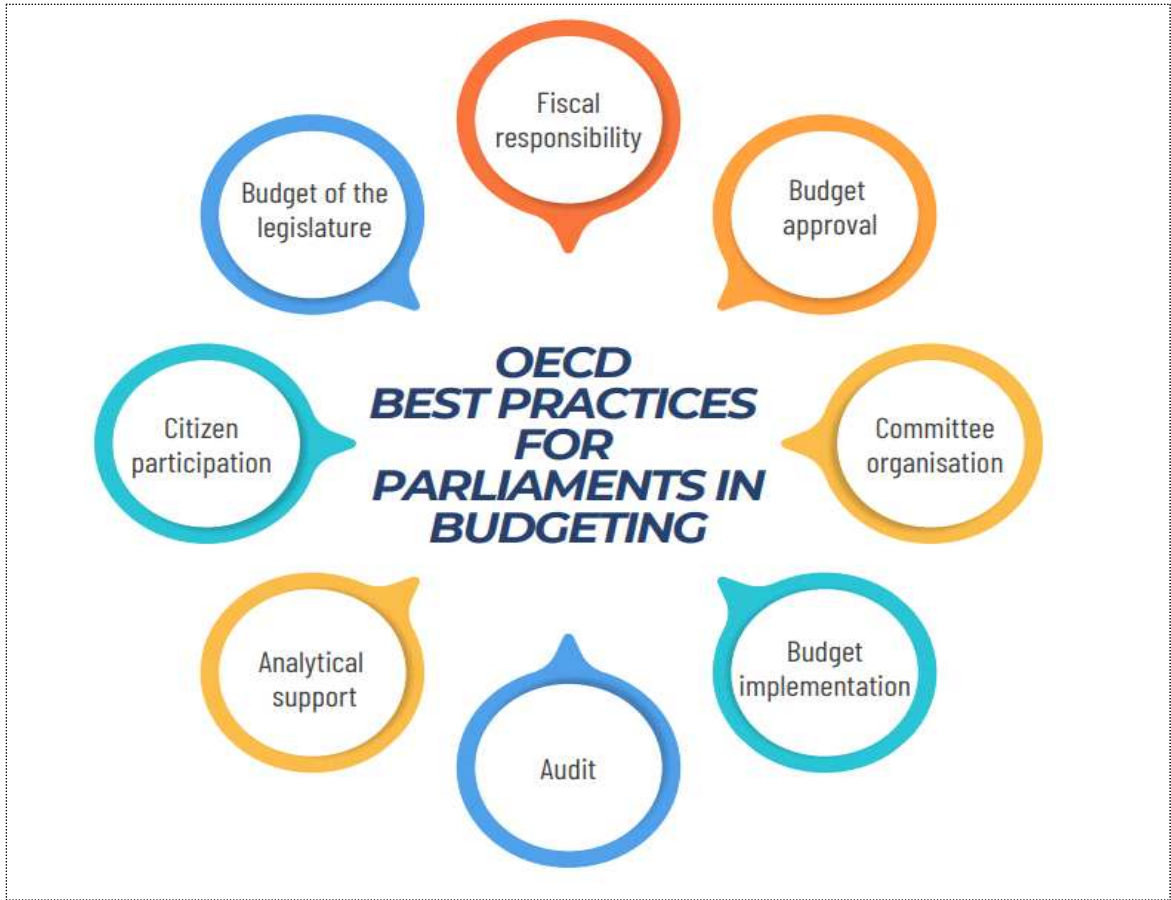
[세션 4] 의회의 예산감시: 최신 동향

□ 발제 및 토론

<Scherie Nicol, Public Management and Budgeting Division, OECD>

- OECD는 최근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회의 예산감시에 관한 설문조사(2025년 의회 예산감시 설문조사)를 실시
 - 이번 조사는 OECD의 제3차 의회의 예산 관행 설문조사로, 이전 조사는 2011년과 2018년에 각각 실시
 - 이번 조사에는 예산 집행, 국민 참여, 의회자체 예산 및 인공지능(AI) 등에 관한 새로운 문항 포함
 - OECD 38개 회원국 중 36개국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 결과를 담고 있으며, 현재 데이터 정제 중으로 오늘 발표 내용은 잠정 결과임
- OECD가 제시하는 의회 예산심의 모범 관행은 ① 재정책임성, ② 예산 승인, ③ 위원회 조직, ④ 예산 집행, ⑤ 감사, ⑥ 분석 지원, ⑦ 시민 참여 및 ⑧ 국회 자체 예산을 포함

[OECD 의회의 예산심의 모범 관행]



자료: OECD

- 재정책임성(Fiscal responsibility)
 - 대다수 의회는 재정운용계획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단 두 개국만이 비관여
 - 전체 응답국의 2/3는 의회에서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검토·토론·승인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함
 -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은 14개국에서 의회에 제출되나, 9개국만이 이를 토론하고, 2개국만이 승인 권한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검토 및 심의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예산승인(Budget approval)
 - 대다수 의회는 무제한 예산 수정 권한을 보유(21개국), 7개국 의회는 총 재정수지 한도 내로 수정 권한 제한
 -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경우의 대응 방식은 (i)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 집행(14개국), (ii) 임시지출안 별도 의결(5개국), (iii) 의회 승인 없이 지출 불가(2개국), (iv) 정부 섣다운(2개국), (v) 정부 예산안 자동 발효(2개국), (vi) 기타(10개국)으로 조사
-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OECD 회원국의 다수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의회 제출(75%), 입법부 승인 의무화(50%), 법적 요건 명시(65%) 등의 제도를 운영 중
- 위원회 조직(Committee organisation)
 - 설문에 대해 응답한 36개국 중 18개국은 양원제, 18개국은 단원제
 - 야당이 주도하는 예산재정·감사 관련 위원회는 여전히 일반적 관행은 아님
 - 대부분의 의회는 예산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 심사 수행
 - 의회에서 전문가를 소환하여 증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고 있음

[의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관련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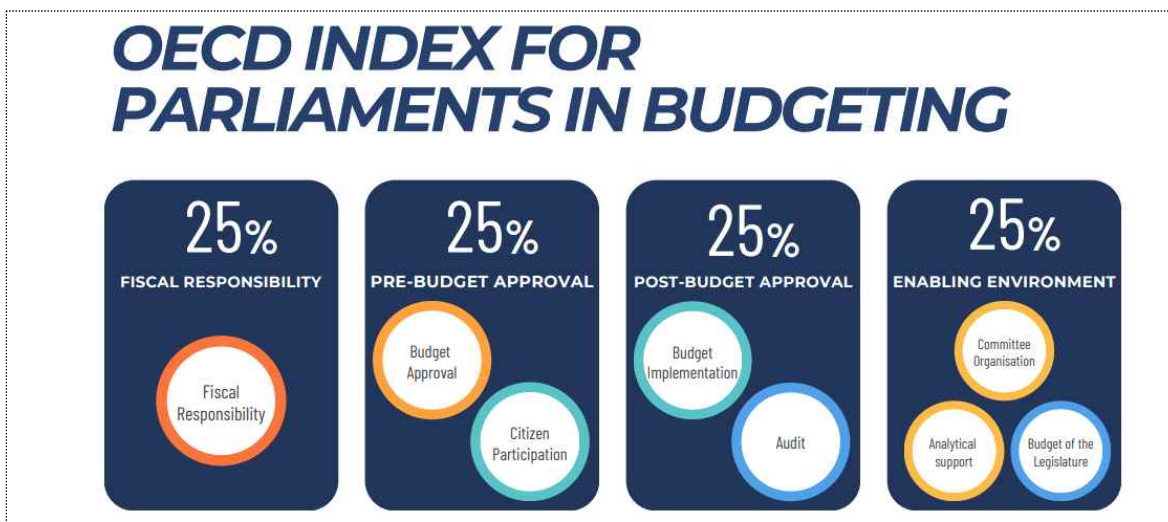


자료: OECD

- 분석 지원(Analytical support)
 - 평균 2개의 예산 지원 서비스들을 수행하고, 국가당 12명의 직원 보유
 - 예산 지원 서비스는 (i) 의회 내부에 자체 예산분석 전담 조직 보유(9개국), (ii) 의회 내 일반 조사분석 업무 수행 부서에서 예산 관련 지원(22개국), (iii) 상임위 등의 소속 직원이 지원(22개국), (iv) 정당별 예산 담당 인력

- 보유(20개국), (v) 독립적 의회예산처 운영(10개국) 등으로 구분
- 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i) 배경자료 제공(24개국), (ii) 의원 질의에 대한 맞춤형 비공개 분석(22개국), (iii) 특정 주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21개국), (iv) 짧은 설명자료,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 제공(18개국), (v) 온라인 탐색툴 제공(7개국) 등의 방식이 활용 중
-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 실제 운영 사례를 보면, 77%의 의회는 위원회 회의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나, 국민 참여 기회를 일반에 홍보하고 있는 나라는 4개국에 불과. 또한, 전체 의회의 1/3은 예산 과정에서 국민 참여 미 실시
- 핵심 시사점
 - 현재 대부분의 의회는 재정운용계획, 예산안 및 예산 변경 등에 대한 강한 승인 권한을 행사 중이며, 의회는 성과 정보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활용 중
 - 재정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국민 참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
 - 인공지능은 실시간 분석 및 입법과정 지원을 위한 새로운 도구로 주목
- OECD 의회 예산심의 지수는, ① 재정책임성 25%, ② 예산 사전 승인 25%(예산안 승인, 국민참여), ③ 예산집행 감독 25%(집행모니터링 및 감사), ④ 우호적인 환경 25%(위원회 구성, 분석적 지원, 의회 자체 예산의 투명성·독립성) 등으로 구성

[OECD 의회 예산심의 지수]



자료: OECD

[세션 5] 국방비 지출

□ 발제 및 토론

< Yves Giroux, Parliamentary Budget Office, Canada >

- 캐나다 의회예산처(PBO)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재정 분석 제공, 위원회 또는 의원들 요청에 응답, 국가 재정 및 캐나다 경제 현황 보고, 재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자체 보고서 제출 등을 임무로 함
- 캐나다 국방 상황
 - 낮은 지출 수준.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1.4%로 NATO의 2%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함.
 - 2010년 F-35 논란 발생. PBO 보고서는 정부 초기 추정치를 상회하는 비용을 발표하여 투명성과 절차에 대한 우려를 일으켰으며, 해군 함정, 헬리콥터 및 기타 주요 조달 프로그램이 예산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상황에 직면함. 또한 국회의원들이 국방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인 감독 역량 문제 존재.


[캐나다 국방비 지출 현황]

Canadian Defence Context

- Low spending level
 - Defence outlays near 1.4 % of GDP, below NATO's 2% guideline
- 2010 F-35 controversy
 - PBO report revealed costs well above initial government estimates, raising concerns on transparency and the competitive process
- Recurring cost overruns
 - Naval vessels, helicopters and other major procurement programs exceeding budgets and facing delays
- Limited oversight capacity
 - Parliamentarians have limited resources to scrutinize defence projects

May 20,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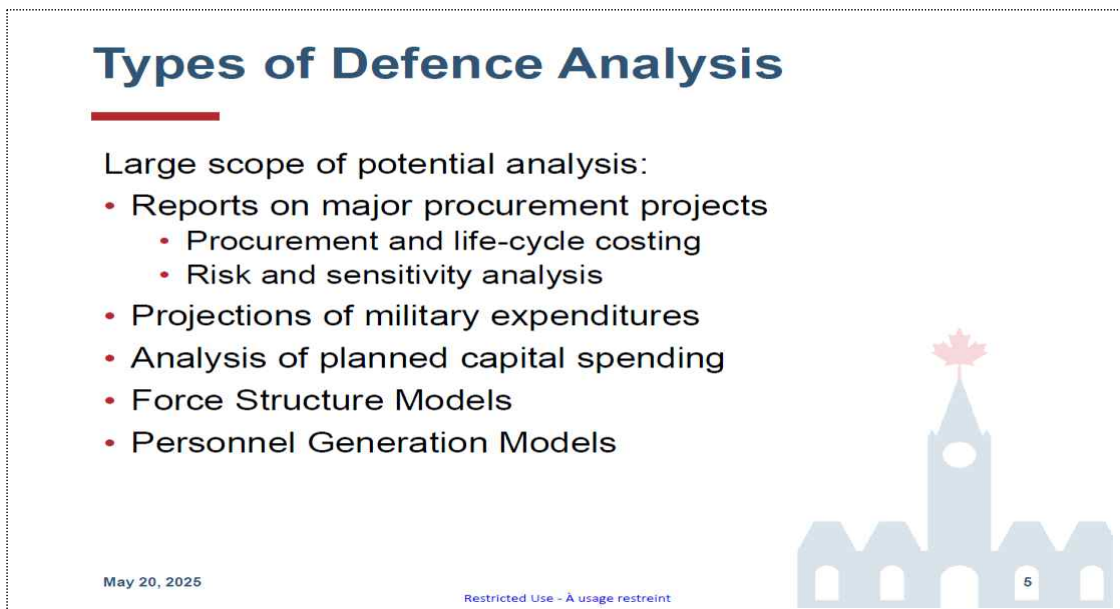
Restricted Use - À usage restreint



자료: Yves Giroux

- 국방비 분석 유형(광범위한 잠재적 분석)
 - 주요 조달 프로젝트 보고서(조달 및 수명주기 비용, 위험 및 민감도 분석)
 - 군비 지출 예측
 - 계획된 자본 지출 분석
 - 전력 구조 모형
 - 인력 세대 모형 등

[국방비 분석 유형]



자료: Yves Giroux

- 독립재정기구(IFI)의 국방비 지출 감독 영향
 - 국방 보고서에 대한 언론의 상당한 보도
 - 의회 토론 및 위원회 보고서 인용
 - 결과 논의를 인한 위원회 출석 요청
 - 국방 조달 관련 부처의 투명성 강화 권고 등
- 독립재정기구(IFI)의 국방지 지출 감시 과제
 - 국방부 및 산업 파트너의 저항(비용 초과 및 잠재적으로 저렴한 옵션에 대한 강조)
 - 제한적인 데이터(공식적인 정보 요청을 통한 데이터 확보, 국제적인 데이터 확보 어려움)
 - 전문성과 자원의 비대칭성(소규모 IFI와 대규모 부처 인력)
 - 방법론적 복잡성(방법론적 엄격성과 비전문가의 접근성 간 균형 필요)

[독립재정기구(IFI)의 국방지 지출 감시 과제]

Challenges

Resistance from Defence ministries and industry partners

- Highlighting cost overruns and potentially more affordable options

Data restricted and siloed

- Must obtain data through formal information requests, international data difficult to procure

Asymmetry of expertise and resources

- Small IFI teams vs large ministry analytical staff

Methodological complexity:

- Need to balance methodological rigor with accessibility for non-technical audiences

May 20, 2025

Restricted Use - A usage restraint



자료: Yves Giroux

< Kenneth Pugh 의원, The Defence Committee, Chile >

- 국방비 지출 분석은 모든 국가의 국회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발표자에 동의함. 이는 국방비의 특징인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기밀성, 비대칭성 등이 요인으로 작용함.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국방비 예산을 결정할지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가 중요하며, 국방비 지출은 보험과 투자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음. 국방비 지출을 무기 구매에 사용할 것인지 또는 자체 생산을 위한 투자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정치적 합의의 필요성 존재
- 칠레는 2019년 이후로 국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적인 합의를 위한 전략적 역량(Strategic capabilities) 강화 법안을 제정(Law 21-174)하고 예산을 12년(세 번의 정부 임기) 단위로 결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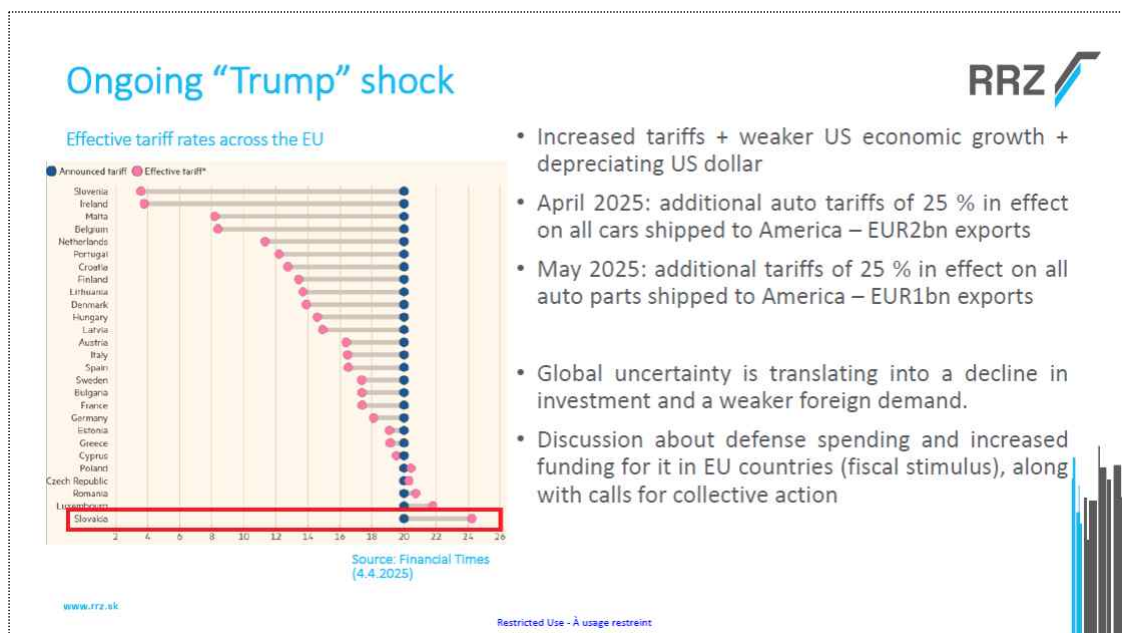
[세션 6] 세계적 불확실성의 환경 속 재정 전망 방안

□ 발제 및 토론

< Jan Toth, Council for Budget Responsibility, Slovakia >

- 슬로바키아 경제에 대한 “트럼프” 영향을 분석
- 슬로바키아 경제 주요 특징
 - 수출 중심 국가(무역/GDP 비율이 180% 이상)
 - 수출의 62%는 EU, 4.5%는 미국, 4.3%는 영국, 3%는 중국이 차지
 - 자동차 산업이 슬로바키아 수출의 중요한 역할
 - 국방 조달 관련 부처의 투명성 강화 권고 등
- 트럼프 충격 진행 상황
 - 관세 인상, 미국 경제 둔화, 미 달러 약화
 - 2025년 4월 미국에 수출되는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 2025년 5월 미국에 수출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 글로벌 불확실성은 투자 감소 및 해외 수요 약화로 전이
 - EU 국가의 국방비 지출 및 예산 증액(재정 부양책) 논의와 공동 행동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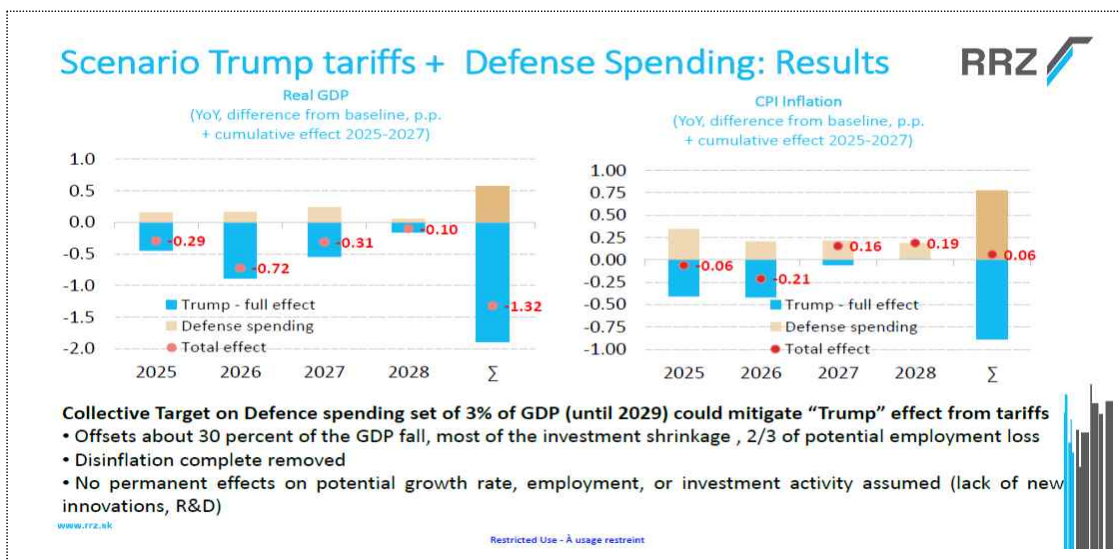
[트럼프 충격 진행 상황]



자료: Jan Toth

-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태 분석(Static exercise)
 - 투입-산출 모형 분석(Banerjee & Zeman, 2021)
 - 현재 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미국 수요 충격의 규모는 정량화하기 어려운 상황. EU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미국 수요가 30%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가정
 - 슬로바키아는 고급 SUV를 미국 시장에 주로 공급하기 때문에 미국시장이 절대적이지 않음
 - 자동차 부문 부가가치 감소는 약 3.2%, 슬로바키아 GDP 0.3% 감소 전망
- 거시 예측 모형 분석(Full macro impact used for forecasting)
 - 슬로바키아 CBR의 거시 전망 모형 활용
 - 미국 시장 접근성 하락에 따른 중국의 EU 시장 수출 확대는 고려하지 않음
 - 슬로바키아는 고급 SUV를 미국 시장에 주로 공급하기 때문에 미국시장이 절대적이지 않음
 - 트럼프 효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고용 0.5% 감소, GDP 1.9% 감소, 수출 3% 감소 전망. 물가는 2025년 0.41%를 낮추고, 2025~2028년 총 0.89%를 하락시킬 전망
 - 국방비 지출 확대(GDP 대비 3%까지 증가, 2024년 2.2% 수준)가 나타날 경우 GDP 감소의 30%를 상쇄하고 물가 하락 효과를 제거할 것으로 전망

[트럼프 충격과 국방비 지출 경제 효과 분석]



자료: Jan Toth

< Seamus Coffey, 아일랜드 Fiscal Advisory Council >

- 아일랜드 경제에서 미국 수출액은 확대되는 추세이며 의약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는 크며, 음식료품 수출이 확대되고 있음
- 다만, 아일랜드 경제의 경우 트럼프 효과가 발생한 2025년 1분기 다른 유로 국가에 비해 오히려 GDP 성장률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트럼프 관세 발표에 따른 아일랜드 경제성장률 변화]

What is the effect of tariff announc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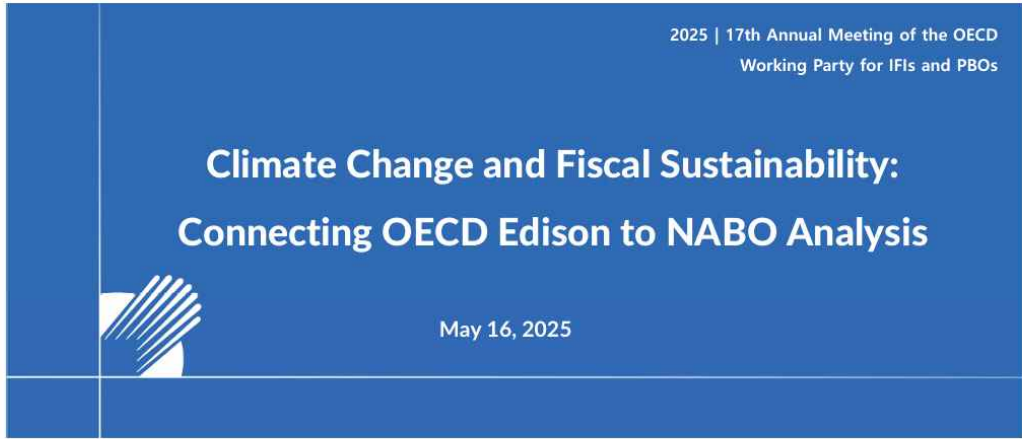
Growth rates of GDP in volume
(based on seasonally adjusted* data)

	Percentage change compared with the previous quarter				Percentage change compared with the same quarter of the previous year			
	2024Q2	2024Q3	2024Q4	2025Q1	2024Q2	2024Q3	2024Q4	2025Q1
Euro area	0.2	0.4	0.2	0.3	0.5	1.0	1.2	1.2
EU	0.3	0.4	0.4	0.3	0.8	1.1	1.4	1.4
Belgium	0.3	0.3	0.2	0.4	1.0	1.2	1.1	1.1
Bulgaria	0.8	0.8	0.9	0.6	2.4	2.8	3.4	3.1
Czechia	0.2	0.6	0.7	0.5	0.4	1.4	1.8	2.0
Denmark	1.4	1.2	1.8	:	4.1	3.7	4.4	:
Germany	-0.3	0.1	-0.2	0.2	-0.2	-0.3	-0.2	-0.2
Estonia	0.2	0.2	0.7	0.1	-0.7	-0.2	1.1	1.2
Ireland	-0.4	4.1	3.6	3.2	-3.1	3.0	9.2	10.9
Greece	1.2	0.4	0.9	:	2.1	2.3	2.6	:
Spain	0.8	0.7	0.7	0.6	3.3	3.3	3.3	2.8
France	0.3	0.4	-0.1	0.1	1.0	1.3	0.8	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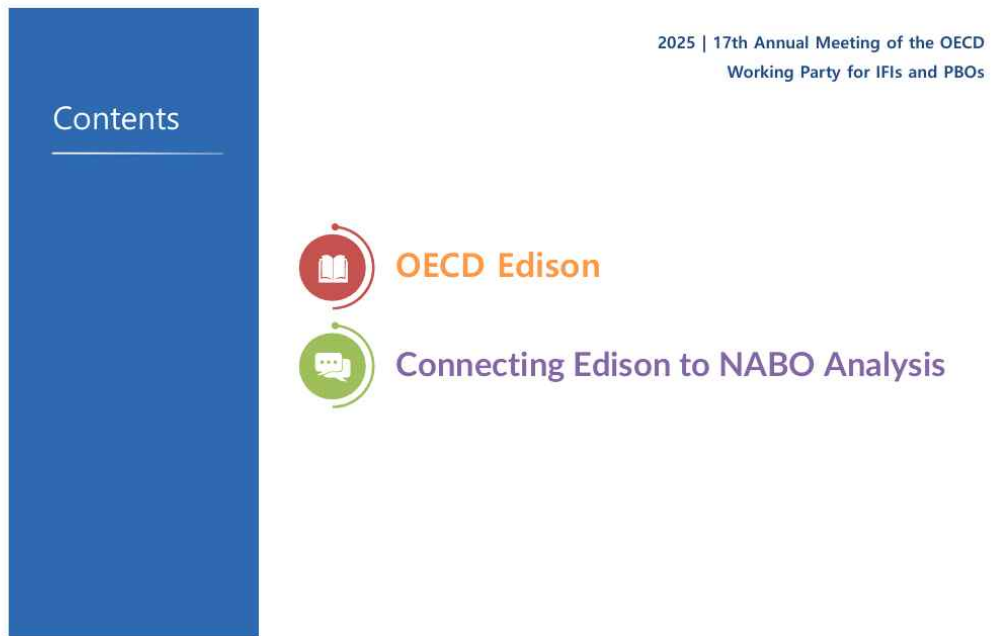
UCC University College Cork, Ireland
Coláiste na hOllscoile Corcaigh

자료: Seamus Coffey

- 아일랜드의 2025년 3월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395% 증가하였는데 이는 관세 발효 전 선적을 앞당기는 방식이 작용된 것으로 판단
- 모형을 활용한 분석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추정할 필요



Ick Jin, PhD/CFA/CIPM
 Director General of Economic Analysis Department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OECD Edison: Inputs

2025 | 17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Working Party for IFIs and PBOs

Part 1. Macro assumptions	
Initial scenario	GDP, inflation, population, exchange rate, ETS
Fuel and energy prices	
Part 2. Climate assumptions	
Climate impacts on growth	global warming scenario, temperature
Estimated damage costs	damage, share covered by state
Part 3. Emissions assumptions	
Economy-wide energy consumption	coal, petrol, gas, electricity
Part 4. Policy assumptions - Revenue	
Taxes on carbon, fuels and electricity	carbon tax, VAT, excise/customs
Private vehicle taxes	battery electric, hybrid electric, internal combustion
Commercial vehicle taxes	low emission, higher emission (light, medium, heavy)
Road use taxes	congestion, distance travelled
Emissions Trading System revenue	price, volume
Air travel taxes	price, volume
Waste-related taxes	price, volume
Other taxes, e.g. carbon price floor	
Part 4. Policy assumptions - Expenditure	
Building upgrade supports	volume, cost, covered by state
Sectoral supports	agriculture, industry, power sector, carbon removals
Government transition supports	transition target, judgement
Known adaptation costs to defend against changing weather conditions	flood defence, coastal retreat, resettlement
Other government subsidies	

nabo

3

OECD Edison: Results

2025 | 17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Working Party for IFIs and PBOs

Graphs
The impact of rising temperatures on revenues
The impact of transition on revenues
Key revenue changes
Vehicle taxes
Carbon, fuel and electricity taxes
The impact of transition on spending
Key spending areas
Tables
Climate impacts on general revenues
Weather damage costs
Weather defence costs
Transition costs

nabo

4

- ☞ **Analyz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public finances
- ☞ **Reflecting** different sources of risk and guiding projections for each one
 - Some expert judgment is needed for projections
- ☞ **Easy filling** in data and looking at the results if time-constrained
 - Sources of pre-filled data are indicated
- ☞ **Allowing** for specific changes to adapt to country-specific circumstances
 - Any data can be overwritten
- ☞ **Exploring** the issue in more depth to improve the tool

Contents



OECD Edison



Connecting Edison to NABO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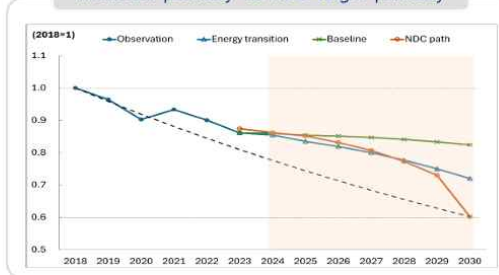
Potential Area: Emissions projection

2025 | 17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Working Party for IFIs and PB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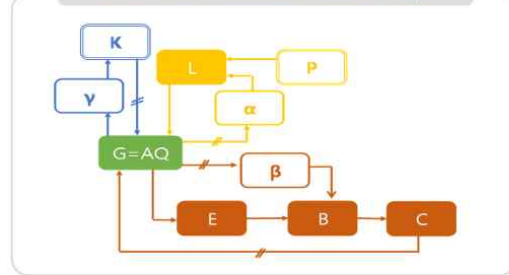
The nexus between GDP, energy, and emissions in the CO-STIRPAT framework

- [Edison] Utilizing analysis results as inputs for "Energy and Fuel assumption"
- [NABO] Extending causal loops to fiscal spending and revenues, referring to the Edison

Predicted pathway vs. NDC target pathway



CO-STIRPAT Framework: Causal Loop



nabo

Source: NABO (2024c), Jin (2024a)

7

Potential Area: Green budget analysis

2025 | 17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Working Party for IFIs and PB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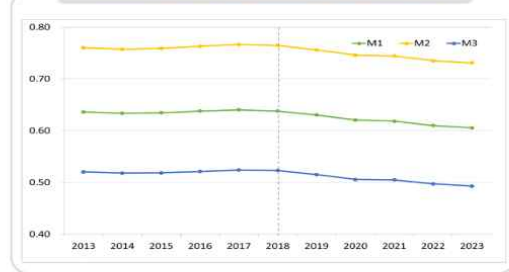
Reconciling the "bottom-up approach" with the "top-down approach"

- [Edison] Expanding the scope to accommodate indirect/unintended impacts of fiscal spending
- [NABO] Working on integrating the path of direct components (ETS, taxes, supports, etc.)

Fiscal Spending and National GHG Emissions



Trends in the Fiscal Elasticity of Emissions



nabo

Source: NABO (2024b), Jin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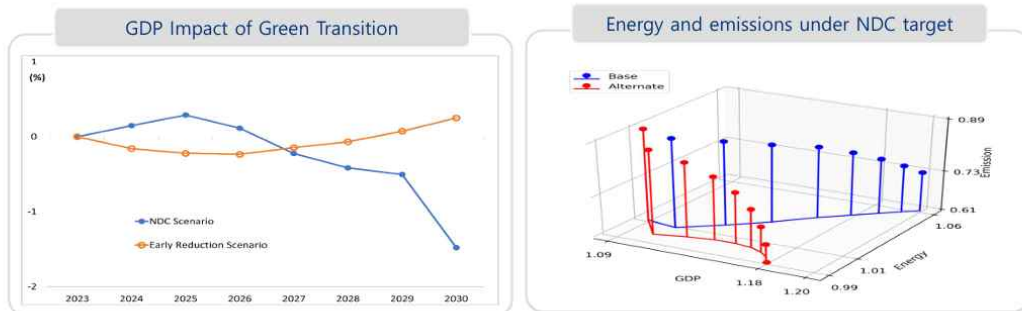
8

Potential Area: NDC analysis

2025 | 17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Working Party for IFIs and PBOs

Analyzing the economic impact of NDC in the context of the energy transition

- [Edison] Internalizing production and energy consumption in line with NDC targets
- [NABO] Incorporating fiscal spending and revenues implied by the energy mix change



naboo

Source: NABO (2024a), Jin (2023, 2024b)

9

Reference

2025 | 17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Working Party for IFIs and PBOs

- OECD. (2025). Edison - An Analytical Tool for Calculating the Fiscal Impacts of Climate Change.
- NABO. (2024a). Economic Outlook for 2024. [in Korean]
- NABO. (2024b). Analysis of FY2023 Greenhouse Gas Reduction Cognitive Budget Statement. [in Korean]
- NABO. (2024c). Economic Outlook for 2025 and the Medium-Term. [in Korean]
- Jin. (2023). Probability of Achieving NDC and Implications for Climate Policy: CO-STIRPAT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2 (4):82-97. <https://doi.org/10.58567/jea02040005>.
- Jin. (2024a). Emission Prediction, Global Stocktake, and NDC Update: CO-STIRPAT Dynamic System. *Green and Low-Carbon Economy*, online. <https://doi.org/10.47852/bonviewGLCE42022058>.
- Jin. (2024b). An Operational Framework for a Low-carbon, Green Growth Economy: CO-STIRPAT Dynamic System.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3, no.4: 79. <https://doi.org/10.58567/jea03040005>.
- Jin. (2025). Aligning Green Budgeting with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Climate Policy*, online. <https://doi.org/10.1080/14693062.2025.2502108>.

naboo

10

2025 | 17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Working Party for IFIs and PBOs



Thank you for attention!

Ick Jin, PhD/CFA/CIPM
Director General of Economic Analysis Department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4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저 방문 및 대사 면담

가 개 요

□ 일시 : 2025년 5월 14일(수) 19:00

□ 장소 :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저

Alcántara 74, Las Condes, Santiago, Chile

□ 참석자

예산정책처: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박주연 기획예산담당관, 이두영 경제분석관, 윤해숙 주무관

대사관측: 김학재 대사, 황정한 공사참사관 겸 총영사 등



주: 대한민국 대사관저에서 김학재 대사님과(左), 대사님 및 참사관님과 면담(右)

나 주요 내용

(1) 칠레 개황

- 칠레는 1949년 5월 27일,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을 승인한 국가이며, 한국과 칠레는 1962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존중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옴
 - 특히 2003년 체결하여 2004년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 최초의 FTA이자, 칠레와 아시아 국가 간 최초의 FTA
 - 2022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
- 현재 60여개 한국 기업이 칠레에 지사를 설립하여 활동 중이며, 약 2,500명의 한인 사회는 한인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 중
 - 한국 문화에 대한 칠레인들의 높은 관심과 최근 우리나라 관광객 증가에 따라 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
- 칠레는 4년 중임의 대통령제 국가로, 의회는 상·하원 양원제 형태
 - 현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 대통령은 2022년 3월 11일 취임하였으며, 올 11월 대선 예정
 - 의회는 상원의원 50인(임기 8년)과 하원의원 155명(임기 4년)으로 구성
 - 상·하원 의장단은 정당 간의 비공식적 협약에 따라 1년 주기로 교체
 - 상·하원 선거는 매 4년마다 대선과 함께 실시(상원의원은 4년마다 1/2실시)
-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은 1966년 상주 대사관 설치 이후 현 22대 대사까지 약 6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재외동포와 재외 국민의 안전과 권익 신장,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원활동 수행 중

(2) 면담 내용

-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칠레의 대응
 - 핵심 수출 품목인 구리와 목재는 이번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연어·과일 등 칠레의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에 대해 칠레 정·재계와 언론의 우려가 높은 상황
 - 지난 4월 중순 칠레 대표단이 보편관세 예외 적용을 목표로 미국 무역대표부와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진행했으며, 2차 협상은 6월 중에 산티아고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
 - 칠레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의존적 무역 구조, 미-중 무역 갈등에 대응하여 무역 다변화 전략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아시아·유럽·중동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
 - 지난 2월에는 기존 칠레-EU FTA를 현대화한 칠레-EU 고급 프레임워크 협정(AMA)이 발효되었으며, 4월에는 보리치 대통령이 칠레-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

- 칠레의 주요 정치 현안 등
 - 2025년 11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음. 최근 불법 이민 문제 심화, 범죄율 증가, 치안 악화 등으로 인한 국민 불만 증대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30% 수준에 불과
 -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는 중도우파 연합 칠레 바모스(Chile Vamos)에서 대통령을 배출하게 될 경우, 강력한 이민 정책 추진과 경제 회복, 물가안정, 기업투자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칠레의 국회의사당은 수도인 산티아고와 이와 북서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항구도시인 발파라이소 두 곳에 위치. 한국에서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바,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서 의회를 운영하는 해외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칠레의 주요 경제 현안

- 대외적 불확실성 및 역내 구조적 문제 등에 기반해 IMF·세계은행 등은 최근 2025년 칠레의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
 - IMF: 2.2% → 2.0%, 세계은행: 2.2% → 2.1%
- 칠레는 광업 수출 중심의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계 수요 둔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
- 원자재(구리) 가격 변동, 미국 관세조치 영향, 달러 가치 등락에 따라 폐소화 가치 변동성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지난 3월 미국의 구리 관세 부과 가능성에 따라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선제 매수에 나서며 구리 가격이 급등
 - ※ 칠레 경제에서 구리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대체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폐소화 가격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반면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달러 가치가 급등하며 환율도 폭등했으나, 최근 일부 달러 가치가 재하락하며 달러당 950페소 내외에서 변동 중